
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◆ '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**22조 2,215억원***으로 '26년(20조 1,362억원) 대비 **10.4%**(+2조 853억원) 증가

* 농식품부 미래대응기금 사업(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) 예산 포함

①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

- 직불 3조원 진입,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의 소득·경영 안정 강화
- 이상기후·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대응 역량 제고
-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

② 생산·수급·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

-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 마련
- 적정 생산 기반의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
- 생산자·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 및 합리적 소비 기반 마련

③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

-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생활 기반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
- 필수서비스(교통 등) 접근성 제고 및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
- 농촌공간 재편, 주거·에너지 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확충

④ AI·첨단기술 활용, K-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

- 피지컬 AI·데이터·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
- K-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
- 유망 농식품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뒷받침

⑤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

- 촘촘한 국민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
- 동물복지 전담체계 마련 및 의료·보호 등 인프라 확충

1.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

(1) 직불 3조원 진입,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의 소득·경영 안정 강화

-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지급단가를 인상하고, 신규 직불을 도입하여 공익직불 예산 3조원 시대에 진입(29,703억원→30,615)
 - 기본형 직불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면서,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 (現 논 대비 80%) 논 지원 수준으로 인상 등 지원 현실화*(24,535억원→25,215)
 - *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~150만원/ha → 170~187 ('26년 대비 +25%)
 - 쌀 수급균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(하계조사료 550만원/ha→580), 신규 품목 도입 등 작목 전환 인센티브 강화(4,196억원→4,568)
 - * (총면적) 205천ha→202, (동계작물) 115천ha→115, (하계작물) 90천ha→87
 - 실질적으로 휴경 효과가 있는 '녹비' 3천ha(150만원/ha) 도입
 - '3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2배 달성을 위해 지원 면적 확대(48천ha→53), 단가 인상* 등 친환경농업직불 확대(407억원→641)
 - * (논) 57~95만원/ha → 72~120, (밭·과수) 78~140만원/ha → 108~190
 - 친환경축산직불 유기지속 단가를 유기의 60% 수준으로 인상(41억원→37)
 - * (유기지속 단가) 25백만원 → 30('26년 대비 +20%)
 - 농장동물 복지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동물복지축산직불* 시범 도입(34억원, 신규)
 - * (대상 축종 및 단가) 산란계(6,395천마리, 1.8원/개), 돼지(115천마리, 6,800원/마리)
-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을 지속하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시 하락분 일부*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도입(91억원, 신규)
 - *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

□ 자금·인력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

- 농업인·귀농인 등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* 공급을 지속(6,077억원)

* 벼 매입자금(1.4조원), 사료구매자금(0.9조원), 농기계 구입 및 생산지원(0.8조원) 등

- 사료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(1,000억원→1,500)
-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형 계절노동(130개소→200)·노동자 기숙사(신규 10개소) 등 지원 확대(369억원→384)

[2] 이상기후·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대응 역량 제고

□ 기후변화로 재해의 빈도·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농업재해보험 지원의 범위와 보상수준을 확대(8,871억원→9,568)

- 품목 확대(농작물재해보험 78개→80, 수입안정보험 20개→30),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원예시설 보장 이관 등 농작물보험 확대(7,769억원→8,313)
-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도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해 피해를 지원하도록 ‘농작물 준보험’ 신설(4개 품목군, 77억원, 신규)

□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강화(956억원→1,228)

* (기존) 재해장해급여금 0~1.2억원x장해율 등 → (개선) 0.9억원x장해율~1.2억원x장해율 등

□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SOC 투자 지속

- 양수장 시설개선으로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강화(246억원→2,509)
- 최근 집행 수준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적정 소요 반영(1,800억원)
- 3대 메가프로젝트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(20억원, 총 730억원, 신규)

- SAT1형 구제역 등 새로운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**백신 확보** 등 선제적 방역역량 확충(440억원, 신규)
 - 사전적·자율적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 우수농가 인센티브 확대(2억원→11) 및 지역 주도형 방역체계* 구축(21억원, 신규)
 - * AI 기반 통제초소 도입, 외국인 근로자 교육, 방역정책 협력센터 운영 등

(3)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

- 농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충분히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농업인 교육부터 영농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
 - 예비농업인 등 신규 진입농을 대상으로 역량진단,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‘(가칭) 청년농업학교’ 과정 신설(1,150명, 90억원, 신규)
 -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(월 최대 110만원, 1,065억원), 후계농육성자금(1조원→1.13) 지원
-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하여 청년농 등에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
 - '27년에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소요 반영(181억원)
 - 공공비축농지 임대·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확대 (5,230ha→6,800, 18,077억원→22,617)
 - * (공공임대용 농지매입) 4,200ha→5,850, (농지매매) 380ha→400, (선임대후매도) 200ha→200, (임차임대) 450ha→350
- 청년농 등 미래세대로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,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 10% 인상* 등 지원 확대(297억원→312)
 - * (매도형) 분할 600만원/ha→660, 일시 4,200→4,620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→528

2. 생산·수급·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

(1)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 마련

- 개별 농가의 농지 집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을 실현하는 공동영농 법인을 육성하여 농업 규모화·효율화 촉진(누적 6개소→36)
 -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·장비 구축 등 지원(26억원→228)
 - * '27년에 신규 선발하는 공동영농법인에 대해 개소당 30억원(국비 50%) 지원
 -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 대응을 위한 운영자금 및 법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·농지 등 자체 투자자금* 지원(504억원, 신규)
 - * 농지 매입, 영농형 태양광 설치,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투자자금(용자) 지원
- 비료·사료·전기 등 필수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급 안정체계 마련
 - 필수농자재법의 차질 없는 시행('27.12월)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태조사, 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 마련(12억원, 신규)
 - * 필수농자재 가격·수급 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, 조기경보시스템 운영·관리 등 지원
 -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·실증 추진(10억원, 신규)
 - 토양·작물 여건에 맞는 적정 시비를 위해 비료 사용량 절감과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실증지구 3,300ha 시범 조성(11억원, 신규)
 - * 규모화된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토양검정, 퇴액비·완효성비료 활용 등 지원
 -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 원료구매 자금 확대(용자규모 2,000억원→5,000)
-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·대형 농기계(트랙터 등)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·군 통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(1개소, 12억원, 신규)

[2] 적정 생산 기반의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

-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·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위성·드론 연계 활용, AI 예측모형 개발 등 농업관측 고도화(192억원→209)
- 쌀·채소·과수 등을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 강화
 - 쌀 수급 안정, 실효성 있는 타 작물 재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(신규)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(884억원→998)
 - * 사일리지 제조비, 종자구입비, 조사료수급조절센터(9억원, 총 100억원) 구축 등 지원
 -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·사과 등 주요 채소·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와 출하조절 지원 확대(226억원→420)
-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, 구조적 불균형 개선
 - 사육면적 확대 시행('27.9월) 시, 계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·증설 자금 지원(3,000억원, 신규)
 - * 케이지 단수 12단까지 확대, 축사 증축 등에 필요한 소요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
 - 구조적으로 생산과잉인 낙농산업에 대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지원을 확대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생산구조를 수요에 맞게 조정(431억원→760)
 - 원유 공급 과잉 시, 보관·활용이 용이한 분유로 가공할 수 있는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지원(9억원, 총사업비 300억원, 신규)
- 쌀 수급 안정과 비상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수준으로 정부양곡 매입(15,813억원, 40만톤) 및 관리비(4,114억원, 80만톤) 반영
- 주요 농산물(콩·밀·배추 등)의 수급 상황에 맞춰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, 부족 시 적기 공급하기 위한 수매·수입 비축 지원(6,772억원)
 - * (수매) 콩 3만톤, 밀 2만톤, 배추 2.3만톤 등, (수입) 콩 16.2만톤, 참깨 2만톤 등

㉓ 생산자·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 및 합리적 소비 기반 마련

- 공공·민간 출자 프로젝트형 SPC를 통해 농산물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, 산지 생산자 및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 지원(55억원, 신규)
-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(물류비, 광고·홍보비 등) 지원 확대 및 전용 물류체계를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* 지원(304억원→505)
 - * (기존) 산지-소비자 개별배송 → (개선) 거점물류센터 통해 소비자로 다품종 소량 합배송
-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지원을 위해 결제·정산자금 확대(1,000억원→1,500)
 - *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: ('25년) 1.2조원 → ('26) 1.5 → ('27 목표) 2.5
- 농산물 상품화 공정의 자동·효율화를 위해 로봇, AI 기술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 APC 지속 지원(278억원)
 - * 스마트 APC(누적) : ('25) 60 → ('26p) 115 → ('27p) 155 → ('30p) 300(전체 APC 중 절반 수준)
-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,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·제공하는 '(가칭) 알뜰하게 장볼지도' 앱 운영 지원(11억원, 신규)

3.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

(1)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생활 기반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-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고,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(69개군)의 절반까지 확대(2,341억원→11,658)
 - * ('26) 본예산 10개군/추경 포함 17개군 → ('27) 35개군
 - **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-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(+10%p)
 - * 보조율: ('26) 국비40%, 광역30%, 기초30% → ('27) 국비50%, 광역25%, 기초25%

-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최초로 출연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농어촌 활력 사업 추진 및 상생협력 활성화(2,000억원, 신규)
 - 지방정부 등에 과제를 공모하는 등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 지원
- 농촌창업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창업 경진대회 개최, 관광 콘텐츠 개발, 투어패스 등 지원(237억원→264)

[2] 농촌 필수서비스(교통 등)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

-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서도 필요한 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농촌형 교통서비스 확충(290억원→724)
 - 기존 버스·택시 등 서비스 지원은 지속하면서,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82개 군에 확산해 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 편의 제고
- 기초적인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
 - 취약 농촌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·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,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(1,310억원→1,604)
 - 농촌중심지에 문화·복지·보육 등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,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, 지역 역량 강화 등 지원(4,500억원)
- 연금·의료·보육 등 농촌 수요 기반의 사회서비스 지원
 - 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(3,362억원) 및 농지 연금(2,766억원→3,444) 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
 - 찾아가는 보건·의료서비스(왕진버스 등)와 주민 공동체 기반 돌봄을 지속 지원해 의료·돌봄 사각지대 최소화(259억원)

(3) 농촌공간 재편, 주거·에너지 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확충

-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주거·산업 등 공간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구조*하기 위한 정비 확대(누적 138개소→158, 1,322억원)
 - * 농촌특화지구 : 농촌마을보호, 산업, 축산, 농촌융복합, 재생에너지, 경관, 농업유산, 특성화농업
- 농촌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재생 확대 및 실태조사, 민간의 빈집거래 활성화 등 지원(46억원→56)
 - 도시민에 소규모 체류 공간, 영농체험, 관광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도모
 - * 빈집재생/체류형 복합단지 개소 수(누적) : ('26) 4개소/6개소 → ('27) 5/9(잠정)
- 노후 농촌주택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패시브하우스* 신축·개량 정책자금 도입(융자규모 600억원, 신규)
 - *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통해 냉·난방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주택
 - 노후·불량주택 개량 등을 위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지속(2,000억원)
-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지역 등에 확산하기 위해 교육, 시스템 구축 등 지원(14억원, 신규)

4. AI·첨단기술 활용, K-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

(1) 피지컬 AI·데이터·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

-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에서 농업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·확산(208억원, 신규)
 -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조성(15개소, 23억원, 신규)
 - 공동영농법인 등에 AI 농업로봇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(210대, 98억원, 신규)
 -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패키지로 AI 기술 적용 지원(78억원, 신규)
 - 식품제조 피지컬 AI 솔루션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실증(10억원, 신규)

□ AI 기반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노지·중소농 스마트농업 확산

- AI 기반의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(16개→25, 56억원→79) 및 중소농 K-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지속 지원(18억원)
-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기반 조성, 솔루션 도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(누적 5개소→8, 103억원→145)
- 노후 축사들을 AI·ICT 기반의 ‘스마트축산단지’로 집적화·규모화·스마트화하기 위한 자금 도입(3개 단지, 441억원, 신규)
- AI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인 AX 플랫폼(705억원→180), 농업 분야 AI 제품상용화 지원 지속(400억원→100)

□ 농업 AX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, AX 실증센터, 생육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2년차 사업비 지원(73억원→145)

* 총사업비 : (비즈니스 센터) 450억원, (실증센터) 400억원, (데이터센터) 300억원

- AI 학습을 위한 농업·농촌 AX 데이터 총조사 지원(20억원, 신규)

(2) K-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높아진 K-푸드 인지도와 수요가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

- 수출 바우처,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원 확대, 수출 통합조직 육성* 등 수출기업과 수출농산물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(1,158억원→1,364)

* 공동포워딩(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효율화 및 운임 절감), 국산 신제품 육성을 위한 지원 추가

-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Next K-푸드 육성 확대(60억원→200)

* (지원물량) 100개사 → 200, (지원단가) 75백만원 → 125

- 국제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구성 및 바이어 발굴·수출 상담 등을 위한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(122억원→220)

- 국내 K-푸드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, 가공식품(탈지분유, 영양강화 비스킷)을 포함해 식량원조 규모 확대(633억원→682)

- K-푸드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과 물류 부담을 완화
 - 해외 한식당 등의 K-식자재 이용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‘K-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’ 도입(1,360억원, 신규)
 - * 대출금액의 70% 이상 국내산 농산물 및 국내 제조 가공품 수입 의무 부여
 - 수출기업의 원료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속(4,000억원)
 - 통관·운송·보관·입점 등 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확충(1개국→2, 50억원→100)
- 국내외로 한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수라학교* 운영, 한식 우수인력 양성 등 지원(26억원, 신규)
 - * 한식 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한식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기관

[3] 유망 농식품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뒷받침

-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 분야에 R&D 투자 및 사업화 지원
 - 피지컬 AI, 그린바이오, 재생에너지, 고부가가치 식품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&D 확대(2,617억원→2,740)
 - * (신규) 무인자율노지생산피지컬AI기술개발(46억원), 농업현장적용재생에너지기술개발(30억원) 등
 -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, 투자유치, 판로·홍보 등 지원 지속(168억원)
-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농식품의 생산·제품화 기반 확충
 - 고품질 K-말차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공라인 구축 지원(22억원, 신규)
 -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농식품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 공유공장 조성(2개소, 22억원, 신규)
- 농식품 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
 - 스마트농업·그린바이오·푸드테크 등 농식품 유망 분야와 K-푸드 수출 활성화 분야에 모태펀드 조성 확대(500억원→550)
 - 농식품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의 후속 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·규모화 등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공급(300억원, 신규)

5.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

(1) 촘촘한 국민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

- 농식품바우처 지원 수준을 높여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 완화(740억원→866)
 - * (대상) 16.1만 가구→18, (단가) 25% 인상(1인 가구 4만원/월→5), (지원 품목) 수산물 추가
- 대학생·임산부·직장인·초등학생 등 생활 속 먹거리 지원 확대
 - 대학생 ‘천원의 아침밥’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(111억원→174)
 - * (식수) 540만식 → 570, (단가) 국비 2천원 지원 → 3천원
 -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(6개월→12, 158억원→314)
 - 직장인 든든한 한끼(79억원), 초등학생 과일간식(170억원) 지원 지속

(2) 동물복지 전담체계 마련 및 의료·보호 등 인프라 확충

-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(1,500만 반려인 등)의 다양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‘동물복지진흥원’ 설립 추진 준비 지원(10억원, 신규)
- 동물 의료 발전 및 펫보험*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(가칭) 구축 추진(39억원, 신규)
 - * 통합 관리된 진료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펫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
- 대국민 인식개선, 유기·유실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 기반 구축(127억원→130)
 - 생체정보(비문 등) 활용 동물등록 실증 검증(5억원, 신규),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(6개소), 은퇴 국가 봉사동물 입양 지원(100마리) 등 지원
 -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한 중성화수술(약 12만마리→13.5), 유실·유기동물 구조보호(6만마리→6.6) 등 확대
- '27년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잔여 소요 반영(316억원)

참고

2027년 예산 정부안 신규사업 현황

① 신규 세부사업(20개 사업, 8,294억원)

(백만원)

사 업 명	회계	'27안	사 업 내 용
합 계	20개	829,417	
동물용의약품인허가심사지원(수입대체)	일반	900	○ 동물용의약품 신속 인허가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인허가 수수료를 전문심사 인력 운영에 활용
예비농업인 역량 강화	농특	9,010	○ 예비농업인 대상으로 역량진단 후 이론·품목탐색 교육, 현장실습 등 체계적인 창농 준비 지원
농업농촌 현장애로 단기해결 기술개발(R&D)	농특	5,514	○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·민간 중심 기술개발-현장실증-체감확산 R&D 지원
한국형 무인자율 노지농업 생산을 위한 피지컬AI 핵심요소 기술개발(R&D)	농특	4,600	○ 노지(논·콩·밀)농업의 피지컬AI 기반 통합 판단·행동·관제가 가능한 자율농작업 생산 기술개발
농업현장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통합 활용 기술개발(R&D)	농특	3,000	○ 농업의 변동적 에너지 수요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변환·공유·활용 기반 현장 통합 운영 기술개발
데이터 표준화 기반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술개발(R&D)	농특	2,650	○ 품질데이터 표준화와 유통 전주기 정보 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유통 의사결정 기술 개발
영농형태양광 활성화 기반구축	농특	1,399	○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
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체계 구축	농특	1,154	○ 공급망 위험에 취약한 비료·사료 등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안정·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, 정보시스템 구축, 실태조사 실시 등
비료사용체계개선 실증지구 조성	농특	1,052	○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퇴비·완효성비료 중심 시비 체계를 적용하여 생육, 비료사용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증지구 조성
동물복지진흥원 설립추진단 운영	농특	1,003	○ 동물복지진흥원 설립·운영을 위해 설립추진단 운영비 지원
비료 공공비축 체계 구축 연구 및 실증 지원	농특	1,000	○ 국제정세 불확실성 확대로 비료에 대한 공공 비축 도입방안 연구 및 실증

사 업 명	회계	'27안	사 업 내 용
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(정보화)	농특	180	○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, 규제, 제품 설계·제조 등 식품산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AI를 활용하여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지원
축산발전종합자금(융자)	축발	344,132	○ 시설 고도화, 난립축사의 집적화 등을 통해 약취 저감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·물가부담 완화
축산발전기금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구축	축발	1,119	○ 국가회계 결산 개편사항 반영 및 기금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
농업발전종합자금(융자)	농발	216,400	○ K-식자재 수출확대 기반 마련, '공동농업법인' 중점 육성, 농식품경영체 성장지원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	농발	200,000	○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 산업 분야와 피해 산업 분야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미달분 한시적 정부 출연
농산물가격안정제	농발	9,050	○ 농산물의 '평균가격'이 '기준가격' 미만으로 하락 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관리	농발	944	○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·유통·판매 전과정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
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	미래	20,810	○ 농식품 전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을 위해 기술·장비의 공유 실증거점을 구축하고 현장 보급·확산
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	미래	5,500	○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품화 지원 등 농산물 유통 혁신 기반 마련

2 신규 내역사업(20개 사업, 9,257억원)

(백만원)

사 업 명	회계	'27안	사 업 내 용
합 계	20개	925,728	
농업재해보험 (농작물준보험 시범사업)	농특	7,697	○ 농작물준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외 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가입 비용의 50%를 지원
검역본부가축질병검사·진단 (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건립)	농특	6,891	○ 동물보건 현장대응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의 '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' 건립
한식진흥지원 (민관협력 한식 우수인력 양성)	농특	2,580	○ 한식 산업 확산을 위한 국내외 한식 인력 양성 지원
농업AX기반조성 (농업·농촌 AX데이터 총조사)	농특	2,040	○ 농산업 AX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AI 학습데이터 파악, 지속형 데이터 축적체계 구축
농촌용수개발 (신북지구농업용수공급)	농특	2,000	○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하여,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부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보강공급대책 추진
한식진흥지원 (향토음식진흥센터 운영비)	농특	1,200	○ 향토음식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
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(식품산업 현장밀착형 기술개발)	농특	720	○ 기업의 푸드테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
가축질병 예방·대응 (민간 가축방역 서비스 운영 지원)	농특	648	○ 방역현장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간 수의 인력 지원
가축질병 예방·대응 (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)	농특	537	○ 축산농가의 방역 지식·태도·실천 수준을 조사하고 거점 방역정책 협력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전략 수립 지원
가축질병 예방·대응 (방역집중 인식제고 프로그램)	농특	492	○ 농장 종업원의 방역 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방역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영상교육 추진

사 업 명	회계	'27안	사 업 내 용
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 (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공공 인프라 구축)	농특	473	○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특성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유 시설 구축
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(농업분야 탄소감축 신기술 실증지원)	농특	400	○ 양적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그래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성 향상의 질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지원
대한민국농업박람회 (여성농업인정책박람회)	농특	200	○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관 운영, 여성농 현안 관련 프로젝트 활동지원 및 성과발표 등
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 (지역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축)	농특	80	○ 거래 알선(B2B) 및 기술교류, 심포지엄,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
농촌경제활성화지원 (K-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)	지특	2,590	○ 청년이 농촌 삶을 이해하고 경로 탐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의 휴식·일·경험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
전통발효식품육성 (전통식품 수출활성화)	지특	1,500	○ 김치 등 전통식품의 장거리 해상유통 품질 안정화 및 수출 규제 대응체계 구축
맞춤형농지지원(융자) (처분농지매입)	농발	886,800	○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농지 매입 지원
축사시설현대화 (소규모 축사 내재해·안전지원)	농발	5,600	○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폭염·안전사고 대응 장비·설비 설치자금 지원
안정생산공급지원 (K-말차스케일업지원)	농발	2,200	○ 말차 호황에 따른 고품질 말차 가공라인 확충 및 거점형 K-Tea 홍보 지원('27~'28)
농식품소비기반조성 (농축산물 알뜰소비앱 활성화)	농발	1,080	○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가격, 식재료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'앱' 활성화 지원